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성교육 방안

Study on Sexuality Education for Future Healthy Generations



오영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며, 청소년의 성문화 및 가치관도 크게 변화되어 왔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과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가치관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성문제는 저출산 대책과 연계 또는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전국 규모로 실시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생의 성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은 대부분 교사가 인정하고 있으나, 성교육 수업시 교사가 직면하고 있는 애로 사항으로 보조 자료의 부족 등이 제시되고 있다.

향후 올바른 학교 성교육이 추구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성교육이 인구교육에 통합된 형태의 교육과정으로 개발이 요구되고, 각 급 교과과정에 포함된 성교육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보강해야 하며, 성교육을 포함한 인구교육은 학교에서 추진되지만 성상담 및 관련 서비스는 관내 보건소를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각급 학교의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수과정의 신설과 다양한 연수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성행위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중심으로 성교육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인구역사상 그 유래가 없는 빠른 속도로 저출산 및 인구노령화가 촉진되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이 주요현안으로 대두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원인은 그간의 압축적 경제성장에 따른 결혼 및 출산관련 가치관의 변화와 자녀 양

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기인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여성의 생식보건 수준의 열악함을 들 수 있다. 저출산의 보건의료적인 원인의 하나는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및 사산, 후천성 불임증, 저 체중아의 발생 등 여성의 생식보건 수준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고 제시되고 있다. 더욱이 여성의 초혼연령이 1972년 22.6세에서 2005년 27.7세로 급상승함에 따라 생식보건 수준의 악화, 인구자질 저하 및 저출산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性)건강은 인구재생산과 관련될 뿐 아니라, 윤리적 가치관과 자기정체성, 사회적 행태의 형성에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이 시기에 건전한 가정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일탈 행위 및 범죄예방과 더불어 중요한 교육적 과제이다.

현재 시행 중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 중에는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분야에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소년의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교육과 관련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세부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를 저출산 대책 중 전략적 교육·홍보 분야에 포함시켜 기존의 저출산 대책과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며, 청소년의 성문화 및 가치관도 크게 변화되어 왔다. 특히 저출산에 대한 대책과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가치관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성문제는 저출산 대책과 연계 또는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 제7차 초·중·고 교과서의 성교육 내용 분석과 학생 및 교사에 대한 학교 성교육 실태 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성지식과 건전한 성가치관을 겸비토록 하고 저출산 대책에 부응한 현실적이고 효율적

인 학교 성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학교 성교육관련 교과내용체계

현재 성교육과 관련된 자료는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교사를 위한 성교육 지침서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책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비디오, OHP, CD, 슬라이드 등도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성교육 지침서의 경우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위한 것으로 직접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성교육 자료는 아니며, 기타 자료들도 교사의 개별적 선택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니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교육 자료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성 관련 책과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라 할 수 있다.

현재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제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초·중·고등학교의 성관련 교과내용을 분석하였다. 교과서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06학년도 성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에 수록된 것을 바탕으로 하고, 분석틀은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행한 성교육 교사용 지침서인 ‘함께 풀어 가는 성 이야기’에서 제시된 성교육 내용 체계를 활용하였다.

성교육의 내용 구성은 인간 발달의 순서가 개인 내적 측면 → 개인 간의 관계적 측면 → 사회적 측면으로 확장되는 점을 고려하여 신체 및

심리 발달, 인간관계 이해, 성문화 및 성윤리의 3개영역으로 구성되었고, 그 하위영역으로서 ‘신체 발달’, ‘성 심리 발달’, ‘성 건강’, ‘결혼과 가정’, ‘이성과 사랑’, ‘자기 결정과 선택’, ‘사회적 환경’, ‘성평등’의 여덟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년별 교과내용을 분석틀에 맞추어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초등학교 5~6학년 교과과정에는 8가지

분야의 내용에 관해 부족한 부분이 많고 성교육이 특정 내용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성장에 따른 신체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 2차 성징이나 월경, 몽정 등과 같은 직접적인 내용은 거의 대부분 6학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영양 및 건강 상태가 개선되어 몽정·유정을 처음 경험하는 시기가 11세가 대부분이고 3, 4학년부턴 초경을 경험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바 교과 과정이 늦어

표 1. 성교육 영역별 교과내용체계(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영역	하위영역	주제	초 5학년		초 6학년		중 1학년		중 2학년		중 3학년		고 1~3학년							
			과학	실과	과학	체육	국어	체육	기술 가정	도덕	과학	사회	과학	도덕	체육	도덕	사회 문화	가정 과학	인간 발달	
신체 및 심리 발달	신체 발달	신체의 구조·변화			0	0		0	0		0						0	0		
		임신과 출산				0					0	0							0	
		생명의 창조·중요성	0			0			0					0					0	
발달	성심리 발달	발달단계특성					0	0	0		0								0	
		사춘기 심리						0	0	0				0					0	
	성건강	생식기 보호·위생																		
		몽정·월경				0		0	0											
		성관련 질병						0	0				0							
	피임						0	0				0								
	이상 성행동																			
인간 관계	결혼과 가정	가족		0				0	0								0	0	0	
		결혼							0					0			0	0	0	
이해	이성과 사랑	이성교제						0	0	0			0	0					0	
		자기결정과 선택	성적 자기 결정권, 자기 주장						Δ		0									
성문화 · 성윤리	사회적 환경	성폭력				0		0	0					0						
		성과 대중매체						0	0					0						
	양성평등	성 역할 및 성평등						0	0	0		0	0			0			0	

주: 1) Δ 국어 과목에 제시되어 있으나 성과 관련성이 떨어져.
2) © 시민윤리, 인간과 사회환경 과목 포함.

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빠른 성장 속도에 맞추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성숙도와 발달단계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교과내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학교의 성교육은 주로 1학년을 대상으로 체육과 기술·가정교과를 통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현행 교육 체제에서 성교육은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2차 성징이 중학교 입학 연령인 13~14세부터 나타난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이 빨라지고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성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성교육 시기가 앞당겨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학교 1학년부터 본격화된 성교육이 2학년, 3학년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성에 대한 태도가 점점 개방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교과과정에도 성관련 질병이나 피임, 인공임신중절 등의 성 건강과 관련된 내용과 10대의 임신이나 성의식의 변화 등 성문화·성윤리와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임신, 인공임신중절의 문제점과 후유증을 강조하며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집중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임신을 하게 된 경우에 따른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사후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특징은 생식기, 이성교제, 성평등 등의 내

용은 기본으로 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 성적 욕구와 중동에 대한 조절 능력, 성폭력, 성관련 질병, 피임 등 실제 상황에서 응용될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의 보강·심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여전히 성교육의 특정 내용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체 발달’, ‘성 심리 발달’, ‘이성교제’, ‘성평등’ 등 중학교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은 반복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성 상품화’, ‘성적 자기 결정과 선택’, ‘생식기의 보호·위생’ 등과 같이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누락되어 있다. 물론 반복적으로 교습하는 것이 내용의 중요성이나 학습의 연속성 측면에서 일정부분 인정은 되지만, 세 가지 영역이 성교육으로 통괄되는 하나의 체제라고 보았을 때 내용의 지나친 편중은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적 자기 결정과 선택’, ‘성과 대중매체’ 등의 내용이나 부자료를 통한 보강이 필요하다. 그밖에 성과 법률, 성의 다양성, 성기능 부전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성교육이 다루어지는 것은 체육 인간발달 교과이나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이러한 선택 교과를 통해 얼마나 효율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교과 내용이 교과서별로 많은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학교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각 학년에 따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교육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성교육은 학생의 신체 및 정서·심리 발달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학습목표가 있어야 하나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저학년이나 고학년에 같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년별 성교육 내용이 연계성이 부족하고 내용 수준 또한 극히 피상적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성교육 내용들이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따라 내용이 심화되어야 하며 적절한 지도방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특강형식으로 성교육이 수행됨으로서 중복학습, 수준미달, 비현실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3. 학교 성교육·성상담에 대한 학생 및 교사의 행태

본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초(5~6학년)·중(1~3학년)·고(1~3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를 분석하였다.

1) 학생의 성가치관 및 학교 성교육에 관한 행태

(1) 학생의 성관련 가치관

“남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초·중·고 학생의 약 2/3(가급적 지켜야

41.1%, 반드시 지켜야 26.5%)이 찬성하였다. “여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생의 약 3/4(가급적 지켜야 39.6%, 반드시 지켜야 34.2%)가 찬성하여 남자 순결의 경우에 비해 높았다. 즉, 성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의 태도는 개방적이기 보다 여전히 ‘성의 소중함’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여타 성관련 일반적인 견해들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표 2 참조).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학생의 69.1%가 부정적이었다. 또한,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동거)” 견해에 대해 학생의 66.6% 그리고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혼전임신)” 견해에 대해서는 학생의 78.4%가 부정적이었다. 학생들 사이에는 여전히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는 것에 대해 더 가치를 두고 있다. 혼전임신의 경우 처리 문제에 대해서 학생의 28.2%가 낳아야 한다는 입장을 그리고 7.5%가 낳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각각 보였다. 혼전임신의 경우에도 생명의 소중함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을 짐작할 수 있겠다. 한편, 학생 중 49.4%는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아야 한다는 좀더 현실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표 3 참조).

여기에서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점들은 학생들 중 대다수가 성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결혼 이외의 과정을 통한 남녀간의 생활과 자녀 출산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결혼제도

를 거추장스러운 굴레로 여기기보다는 자녀를 생산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성에 관한 가치관이 개방적이나 보수적이거나 하는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은 실제 학생의 인생을 좌우하여야 할 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학생들이 성에 관한 한 안전하고 어려움 없이 생활(가정생활,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성교육의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2) 학교 성교육 관련 학생 행태

① 학생의 학교성교육 경험률

초·중·고 학생들 대부분인 98.3%가 학교

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생의 학교 성교육 경험률이 가장 낮다고 해도, 그 비율은 89.1%이며,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의 경험률은 98% 이상으로 높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성교육 경험률이 높다고 해도 성교육 내용별로 보면 큰 편차가 있다. 비교적 기초적이라고 생각되는 생식기구조·이차성징의 성내용만이 80% 이상 성교육 경험률(87.4%)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임신·출산 74.5%, 이성교제·성관계·혼전순결 68.2% 등 일부 성내용들에 대한 교육경험률은 60~70% 수준이었다(그림 1 참조). 성문제의 예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내용들에 대한 교육경험률은 피임방법 56.6%, 성병·에이즈 52.5%로 절

반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미혼모·인공유산에 대한 교육경험률은 25.4%로 아주 낮았다.

현실적으로 현재 초·중·고 학생들 중 이성교제를 경험한 비율은 절반수준(교제 중 11.4%, 교제 경험 35.7%)이며, 학년이 높을수록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성교육이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을 뿐, 실제 일반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치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다. 환언하면, 학교 성교육의 수준은 인구자질 향상 등에 취약하다고 하겠다.

학교급별 즉, 성장발달단계별로 보면 초등학교(5~6학년)이 받았던 성교육은 생식기구조·이차성징(72.0%)과 임신·출산(48.7%)에 집중되어 있었다. 다른 내용들에 대한 교육경험률은

낮았으며, 특히 피임방법, 미혼모·인공유산 등 청소년의 성문제와 보다 직결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교육경험률은 5% 미만이었다(표 4 참조). 이는 현행 교육 체제에서 성교육이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학년층의 신체적 및 생리적 성숙도가 날로 빨라지고 있는 점과 최근 청소년의 성문제가 저학년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성교육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내용별 성교육경험률은 예외 없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혼모·인공유산에 대한 경험률은 전 학교급을 통해 5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성병·에이즈관련 교육경험률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피임방법에 대한 중학생의 교육경

표 2. 학생의 결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급적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지킬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계(명)	평균 ¹⁾
남자의 결혼전 순결	26.5	41.1	16.6	4.3	11.5	100.0(11,231)	2.33
여자의 결혼전 순결	34.2	39.6	12.8	2.3	11.2	100.0(11,217)	2.17

주: 1) 반드시 지켜야한다=1, 가급적 지켜야한다=2,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3, 지킬 필요가 없다=4의 4점 척도에 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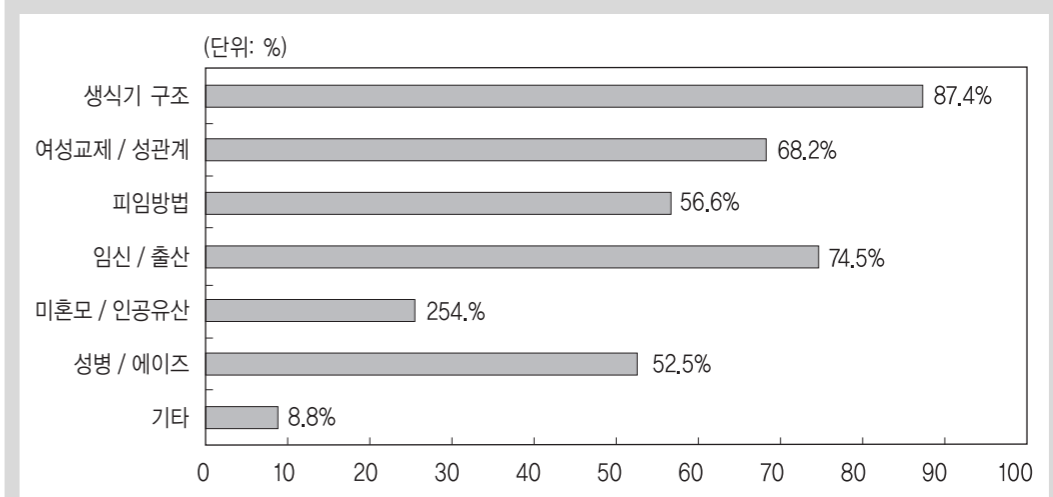
표 3. 학생의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계(명)	평균 ¹⁾
혼전 성관계	8.4	22.5	34.6	34.5	100.0(11,219)	2.05
혼전 동거	7.1	26.3	40.2	26.4	100.0(11,232)	2.14
혼전 임신	4.2	17.4	36.0	42.4	100.0(11,232)	1.83

주: 1) 매우 찬성=4, 대체로 찬성=3, 별로 찬성 안함=2, 전혀 찬성 안함=1의 4점 척도에 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그림 1.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학교 성교육 경험률(교육내용별): 중복 응답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험률은 55.1%로 여전히 낮았다. 2001년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에서 중학교부터 피임교육이 강조되는 것과 다소 거리가 있는 실정이다. 고등학생(인문계 84.3%, 실업계 64.5%) 모두 피임방법에 대한 성교육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 특이한 점은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실업계 고등학생의 성교육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② 학교 성교육의 도움정도

양적인 측면에서 학교 성교육의 경험(수업)정도를 진단하였다. 그 결과 성교육 내용별로 학생의 경험정도는 편차가 존재하며, 현실과도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은 '성교육 경험정도의 양적인 측면' 이외 학생들이 체감하는 도움정도를 통해서도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도움정도는 학교 성교육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학

생의 만족도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도 조사에서 지금까지 학교에서 받았던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초·중·고 학생들 중 매우 도움이 된다 9.8%, 약간 도움이 된다 28.1%, 보통이다 38.4%,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8.5% 등으로 응답하였다. 즉, 학교 성교육에 대해 초·중·고 학생들 중 62.1%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그림 2 참조). 이러한 결과는 학교 성교육의 내용이 학생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학생의 성장발달단계에 따른 요구와 수준에 맞는 효과적인 성교육자료의 개발과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③ 학생의 성지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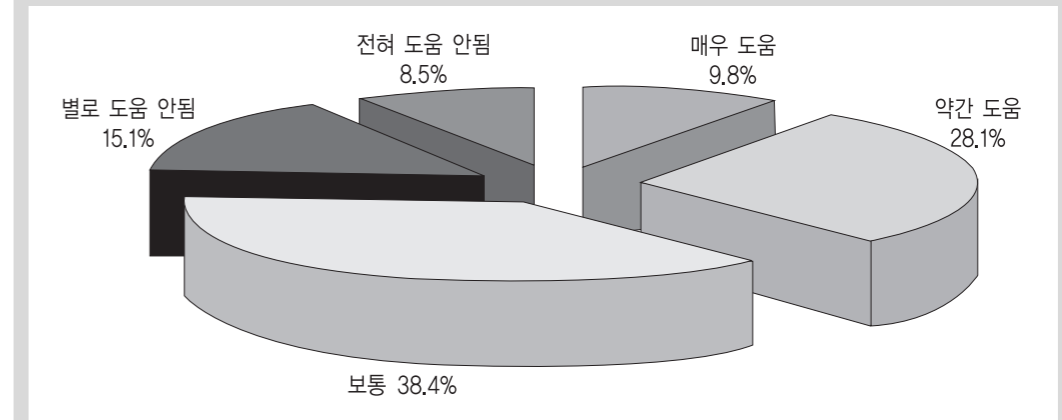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학생의 인지도는 80.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임신·출산과정 77.7%, 피임방법 58.7%, 성병·에이즈의 예방법 46.3%, 인공유산의 부작용 42.6% 등의 순이었다(그림 3 참조). 이를 통

표 4. 학교급별 성교육 경험률(중복응답)

구분	생식기 구조·이차성징	이성교제 성관계·혼전순결	피임방법	임신출산	미혼모·인공유산	성병·에이즈	기타	무경험	(대상자수)
초등학교	72.0	31.1	4.1	48.7	3.1	13.8	18.3	6.5	(1,900)
중학교	90.2	74.5	55.1	72.2	22.6	51.8	7.7	0.8	(4,753)
인문고	93.4	78.7	84.3	90.4	40.9	70.5	5.8	0.4	(3,632)
실업고	81.8	71.2	63.5	76.3	25.5	64.9	6.0	1.5	(95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그림 2. 초(5~6학년)·중·고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 성교육 내용의 도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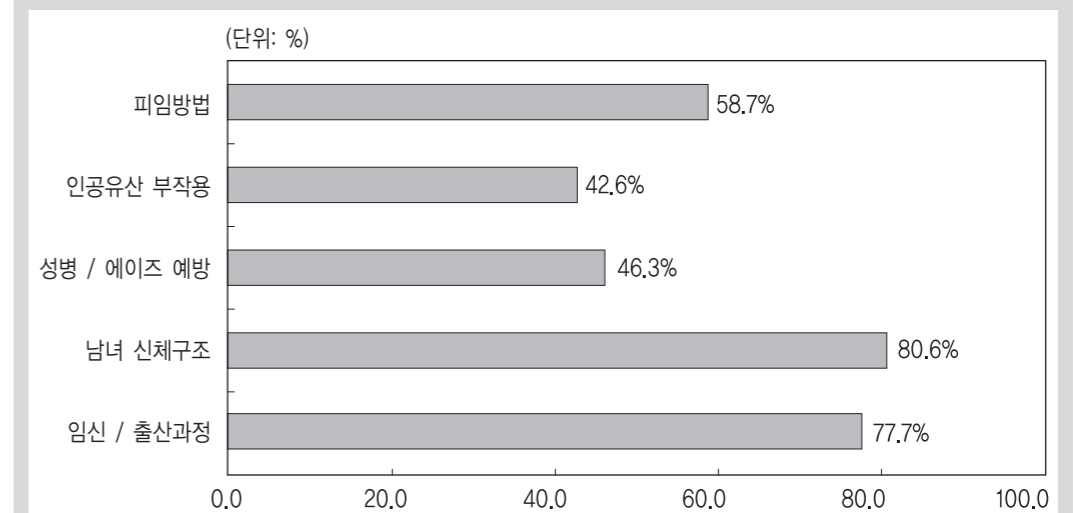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해 과학적이고 해부학적인 정보와 지식(생식기 구조·이차성징 등)에 대한 교육내용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으나 피임, 인공유산, 성병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내용은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성교육 내용별 학습경험률과 인지도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성교육 내용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

그림 3. 초(5~6학년)·중·고 학생의 성관련 인지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여(통계적으로 유의미), 학교 성교육이 학생의 성지식수준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임방법의 상관계수만이 0.52로 비교적 높았을 뿐이었다. 다른 성교육 내용들의 상관계수는 미혼모·인공유산관련 0.29, 성병·에이즈관련 0.43, 생식기 구조·이차성징관련 0.27, 임신·출산관련 0.32 등으로 상관관계가 약했다. 즉, 학교 성교육의 효과가 대체적으로 낮은 편으로 진단할 수 있다(표 5 참조).

④ 학교 이외의 성관련 정보 습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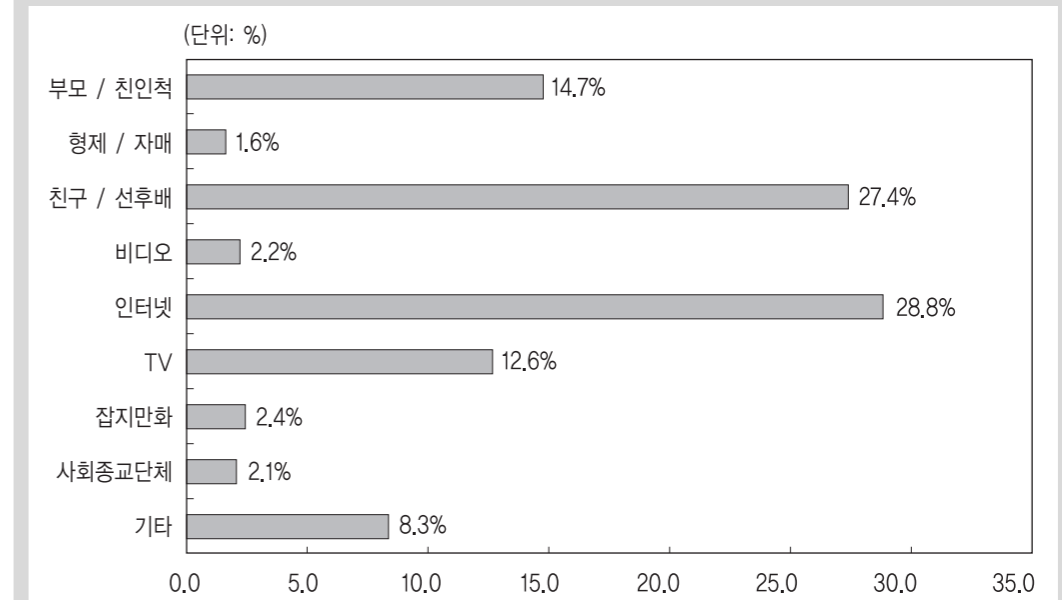
학교 성교육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은 학교 이외의 매(개)체를 통해 성관련 정보를 구하려 할 것이라는 가설의 설정이 가능하다. 물론, 비의도적인 경우로서 우연히 매체에 접근하여 성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 이외에서 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 방법(매개체)으로는 인터넷(PC통신) 28.8%, 친구·선후배 27.4%, 부모·친인척

14.7%, TV 12.6%, 잡지·만화 2.4%, 비디오 2.2%, 사회종교단체 2.1%, 형제자매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TV, 잡지, 비디오 등 대중매체에 의한 성정보 습득이 46.0%로 친구·선후배, 부모·친인척, 형제자매 등 주변 사람에게 의한 습득 43.7% 보다 높다(그림 4 참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친구나 대중매체를 통해 성정보를 습득할 경우 단편적이며, 왜곡된 지식을 가질 위험이 있고 성충동을 자극할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강화되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3) 학생의 성관련 상담자(원)

성과 관련한 학교의 기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르고 현실적인 성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학생의 성관련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것이다.

그림 4. 초·중·고 학생의 학교이외 성정보 습득경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그러나 실제 학생들이 성관련 고민을 누구와 상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학교의 기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6년도 조사에서 학생의 주 상담자는 친구·선후배 32.8%, 부모 21.8%, 인터넷(PC통신) 10.6%, 형제·자매 3.0%, 상담전문가 상담 2.2%, 성교육책자 1.9% 등의 순이었다. 학교 교사와 상담한 학생들은 겨우 1.3%로 거의 무시할 수준이었다. 이외 혼자 스스로 해결한 학생은 18.2%에 이르며, 3.2%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그림 5 참조). 이와 같이 학생들이 성문제를 ‘친구/선후배’ 등의 또래집단이나 개별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의 전문적인 상담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전문적인 청소년 상담 클리닉이나 서비스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현실을 짐작케 해준다.

2) 학교 성교육에 관한 교사의 행태

(1) 성교육관련 교사의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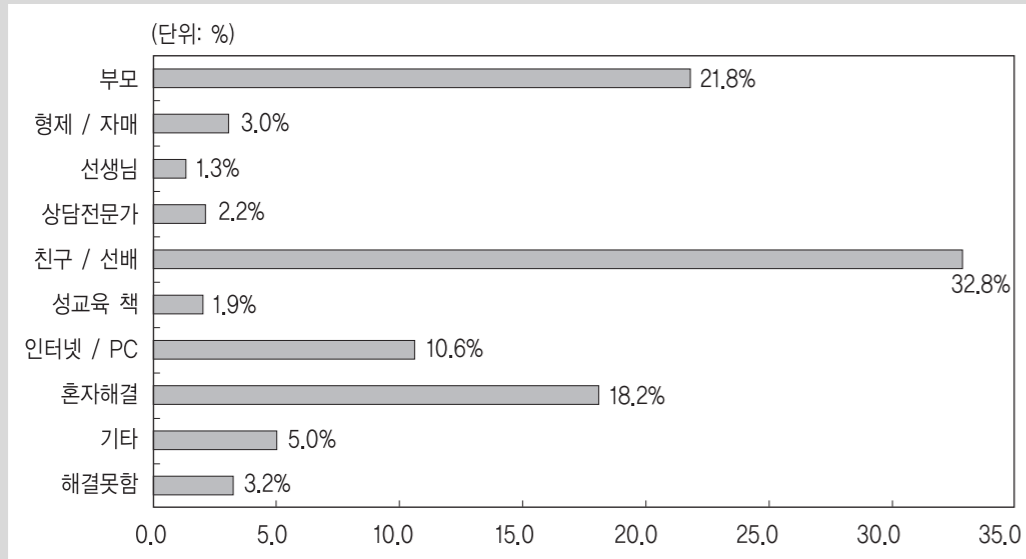
본 조사에 응한 교사들 중 33.5%만이 현재 성교육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들 성교육 담당 교사 중 타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비율은 35.4%에 불과하였다. 즉, 성교육 담당교사에게 성관련 전문지식, 기법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기회가 주어

표 5. 초·중·고 학생의 학교성교육과 성지식수준간의 상관계수

구 분	피임방법인지	인공유산의 부작용	성병·에이즈 예방법	신체구조 인지	임신·출산 과정 인지
생식기 구조/이차성징	0.207***	0.123***	0.148***	0.272***	0.255***
이성교제/성관계/혼전순결	0.248***	0.173***	0.209***	0.240***	0.236***
피임방법	0.520***	0.274***	0.337***	0.307***	0.312***
임신/출산	0.259***	0.186***	0.201***	0.257***	0.325***
미혼모/인공유산	0.277***	0.292***	0.259***	0.207***	0.217***
성병/에이즈	0.309***	0.209***	0.432***	0.250***	0.227***

주: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그림 5. 초·중·고 학생의 성관련 상담자(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학교 성교육에 대한 교사의 행태

‘교과서에 제시된 성교육관련 내용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한지’에 대한 교사의 응답은 매우 적절 1.1%, 적절한 편 20.2%, 보통 46.3%, 적절하지 않은 편 30.5%, 전혀 적절하지 않은 편 1.9% 등으로 긍정적 태도가 21.3%에 불과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성교육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한지’에 대해 매우 적합 0.5%, 적절한 편 14.4%, 보통 41.4%, 적절하지 않은 편 39.0%, 전혀 적절하지 않은 편 4.6% 등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14.9%로 매우 낮았다. 학생대상 성교육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 73.4%, 필요한 편 23.6%, 보통 2.7% 등으로 교사 대부분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표 6 참조).

(3) 교사의 학교 성교육 수업 시 애로사항

성교육에 관한 수업을 할 때의 애로사항으로 는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24.7%, 성에 관한 태도나 가치관을 재미 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잘 모른다 17.4%, 현실이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13.0% 등의 순이었다(그림 6참조). 이는 성교육 자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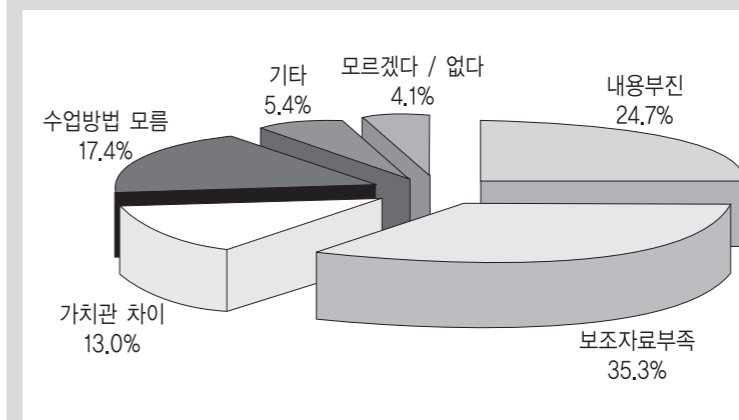
표 6. 교과서 성교육 내용이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의 도움정도에 대한 교사의 태도

(단위: %)

구 분	매우 적절	적절한 편	보통	적절치 않은 편	전혀 적절치 않은 편	계 (명)
교과서의 성교육내용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성 여부	1.1	20.2	46.3	30.5	1.9	100.0 (367)
교과서의 성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성 여부	0.5	14.4	41.4	39.0	4.6	100.0 (367)
학생에 대한 성교육의 필요성 정도	73.4	23.6	2.7	0.3	-	100.0 (36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그림 6. 교사의 학교 성교육 수업시 애로사항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중함을 중요시 여기며 결혼과 자녀출산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성에 관한 건강한 가치관이 보호되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성에 관한 큰 장애 없이 가정 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

질적·양적 부족이나 활용 측면과 관련된 문제들이 일선 교육현장의 제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3) 학교 성교육관련 학생·교사 행태의 시사점

성에 관한 학생들의 가치관을 살펴본 결과, 성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적인 태도보다 성의 소

기 위해서는 학교 성교육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 성교육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높으나, 학교 성교육 내용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성교육과 학교 성교육간의 상당한 괴리가 있어, 결과적으로 학교 성교육이 학생들에게 주는 도움정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학교 성교육의 내용과 학생의 지식수준간의 상관정도도 매우 낮아, 학

교 성교육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결국 학생들의 성교육으로부터 기대하는 욕구가 충족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교육 이외 다양한 매체들에 무분별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 성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학교의 기능은 거의 무시할 수준이었다. 결국 학생들의 성문제(고민)는 비전문적인 루트(route)를 통해 처리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학교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대부분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2/3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성교육관련 훈련을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육 공급자의 질적 수준의 문제는 성교육의 실효성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급자적인 관점에서 학교 성교육의 내용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 중 상당수가 성교육 교재 및 참고자료의 양적 확충과 질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학교 성교육에 대한 수요자로서 학생과 공급자로서 교사의 행태로부터 제기할 수 있는 정책적 건의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혼전임신 예방, 성병·에이즈 예방 등 학교 성교육의 내용을 청소년의 성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한다. 즉, 과거와 같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성교육을 탈피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성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성교육이 요청된다. 둘째, 학생의 발달수

준에 알맞은 체계적인 학교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장발달단계별로 다양한 교육자료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 성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교육내용 또는 교육방법 등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담당교사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성교육관련 교과내용에 대한 수업지도 방안 개발 등이 요구된다. 끝으로 학교의 성상담 기능을 강화시키도록 한다.

4. 학교 성교육 개선방안

1) 학교 성교육 기본목표

향후 학교 성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일상 생활에 필요한 바람직한 습관을 길러 주는 것이고, 지적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지식을 갖게 하며, 그리고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게 하고 분별력 있는 성윤리를 확립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목표는 첫째, 현실적이고 올바른 성지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성문제를 예방한다. 셋째, 성적 의사결정력을 키운다. 넷째, 성 표현물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갖게 한다. 다섯째,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 여섯째,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키운다. 일곱째, 인간관계 교육을 실시한다. 따라서 성 교육은 성지식을 전달하거나 성 도덕만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 속에 성에 대한 건전하고 올바른 의식 및 자각을 길러

주어야 한다.

2) 학교 성교육 내용과 방법

(1) 성교육 내용

첫째,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교육 내용을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성에 대해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매우 많은 시기이며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까지의 생식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성교육보다는 학생들의 요구에 입각한 구체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음성적인 성에 관한 호기심을 양성화하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춘기의 성호르몬의 변화는 강한 성적 충동과 호기심을 유발시켜 성적인 욕망이 증대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증대되는 성적 욕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성을 상품화하는 잘못된 사회적 문화를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교육은 성과 관련된 지식전달이나 순결교육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과 관련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편견을 없애주고 건전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나이가 자신의 성적인 삶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있다.

넷째, 성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식을 가르친다. 성폭력의 심각한 문제점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 즉 각자의 신체는 각자의 것이므로, 타인에 의해 내 몸이 함부로 다루어지는 안 되며, 또한 타인의 신체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즉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2) 성교육 운영 방법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성교육은 이론적이고 교과서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비율은 높게 나타나지만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 성교육이 성 고민 해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수업형태를 변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교육 시간은 강의식,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소규모 집단의 대화와 토론 및 논의 형태로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교육에 필요한 지식은 물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각 학생들의 의식, 윤리,

도덕의 문제는 학생들이 소집단으로 나누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문제의 해결과 대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토론식 수업이 효과적이다. 바람직한 성교육을 위해서는 수업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론보다는 실제 경험사례가 많이 인용되어야 한다.

성교육 담당자로는 주로 기술가정과 교사, 보건교사, 체육교사 등이며 현재 대부분의 교사들은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어 성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다. 성교육에 대한 일반교사들의 적극적 협조 없이 성교육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성교육은 특정교사에 국한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담임교사의 경우 학급 학생들의 생활전반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므로 청소년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성관련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5. 성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기본지침 중 성교육은 관련 교과와 특별활동을 통해 지도하고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관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성교육이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2000년 학교 성교육 기본계획에서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연계된 체계적인 성교육 지침 및 자료의 보급과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

은 계획은 법적 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재하여 학교 성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성교육과 관련된 법체제의 구축, 성교육 관련 교재 개발 및 운영체제가 구비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성교육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여 정부의 행정조직망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결혼, 가족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형과 저출산 및 고령사회 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 등 대부분의 시책 내용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차세대들의 성교육 내용도 저출산 대책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 규모로 실시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교육의 내용이 학생의 성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학교 성교육의 양적 제공보다는 질적인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학교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조사에서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은 대부분 교사가 인정하고 있으나, 교과서 성교육 내용에 대한 교사의 평가는 성교육 내용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크게 도움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성교육 수업시 교사가 직면하고 있는 애로 사항으로 보조 자료의 부족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본 분석결과에 기초해 볼 때 향후 올바른 학교 성교육이 추구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교육과 성교육은 각각 분리된 형태의 교육과정 개발보다는 성교육이 인구교육에 통합된 형태의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관련된 인구교육과 성교육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일선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이나 특별활동을 통한 성교육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통합형태의 인구교육의 법제화나 별도의 정규교과가 제도화 되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는 시도 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교과나 특별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급 교과과정에 포함된 성교육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보강해야 하며, 인구 및 성교육을 위한 교과서, 지침서, 기타 교육보조자료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청소년의 성교육은 교과내용에 분산하여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판단되지만, 성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궁금증과 고민을 풀어주고 청소년들이 성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교과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인구 및 성교육은 교사나 부모의 언행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교사가 인구 및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전문적 지식을 겸비 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학부모가 성과 관련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두루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교육 자료의 경우 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으므로 자료 내용에 관한 검증과정을 통해 수준 높은 자료생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 내에 성교육을 포함하는 「학교인구교육개발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성교육을 포함한 인구교육은 학교에서 추진되지만 성상담 및 관련 서비스는 관내 보건소를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보건소는 청소년에 대한 성보건 사업이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성교육이 보건소와 학교와 가정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부모를 포함한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공동주관하는 성교육관련 강연회, 세미나, 성평등에 관한 연극 등 다양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내용(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에는 성교육과 관련된 세부실천계획의 보완과 더불어 학교, 보건소 등 관련기관 및 단체간의 역할분담이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각급 학교의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수과정의 신설과 다양한 연수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 및 성교육은 학교 생활전반에 걸쳐 모든 교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상기 「학교인구교육개발센터(가칭)」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동 센터에서는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보급과 강사 양성교육만을 전담하고 지역단위의 강사진이 교사의 연수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각급 교육원에서 실시되는 훈련사업의 강사요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성행위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중심으로 성교육이 다루어져야 한다. 성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여 현재

초혼연령의 상승과 연계하여 나타나는 불임부부의 증가, 임신소모율의 증대, 저출산 및 기형아의 증가 등 인구자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20대 적령기에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동기조성에 역점을 두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수립단계에서 일선 학교의 교육현장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인구교육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교사들의 자율적인 교육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보건복지